

충북도회 김동오 회장

열린 행정으로 전국 제일의 화합과 소통의 충북도회 도약



전국 시·도회는 지난해 개최된 총회를 통해 제9대 시·도회장을 새롭게 구성하고 각 지역의 기계설비건
설업계 및 협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시·도회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듣는 코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지난 3월부터 충북도회를 이끌고 있는 김동오(주)태창공영 대표
회장으로부터 충북도회의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을 들었다. 충청대학교 건축설비환경학과 1회 졸
업생인 김동오 회장은 기계설비인으로서 기계설비건설업계 및 회원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갖게
되어 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충북도회 발전과 회원사간 단합에 힘쓰고 있다. [편집자 주]

제9대 회장으로서는 활동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전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김하중 전 주중대사가 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 "많은 기도를 통해 나는 물론 국가와 민족,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 자신의 쓰임을 알게 되었으며, 모든 일은 나의 마음보다는 하느님의 뜻이었다"는 고백을 읽고 저도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 저의 쓰임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해 3월 출범한 제9대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역임하던 중 도회장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몇 개월간 회장 직무대행을 했었습니다. 이후 지난 3월 20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회장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사실 회장에 출마하기 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타 시·도회장님들에 비해 젊고 경험도 부족해서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전임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들께서 적극 밀어주셔서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도회는 지난 10여년 동안 회장 선거에서 단독출마를 해왔지만 이번 선거는 경선을 통해 치러졌습니다. 선거 후 저와 함께 경선을 했던 회원사 사장님께도 적극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지금은 협회 일을 함께 의논하는 등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적극 밀어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세 가지 다짐을 하였습니다.

첫째, 충북도회와 회원사를 위해 '봉사'하는 회장이 되겠다.

둘째, 화합과 단결을 위해 회원사 여러분과 소통하겠다.

셋째, '내가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충북도회는 170여개 회원사로 북부지역(충주, 제천, 단양) 20여개사, 남부지역(보은, 옥천, 영동) 10여개사, 나머지 80%는 통합 청주시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회원사간 화합이 잘 될 수 있는 여건임에도 그동안 우리도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화합이 힘든 상황였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도회의 화합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여 저는 회원사간 화합과 단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특히 회장은 협회와 회원사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심을 버리고 '나'가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적극 실천하다 보면 전국에서 화합과 소통이 가장 잘 되는 도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충북도회는 지금 과도기에 놓여있습니다. 60대 이상의 원로 회원사와 40대의 젊은 회원사가 많이 포진되어 있으며 50대 회원사들이 주축이 되어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충북지역에 40대 젊은 회원사가 많은 까닭은 충청대학 건축환경설비과 졸업생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회는 신·구 간의 조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신·구를 아우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임 회장님들과 원로 선배님들, 그리고 40대 젊은 층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번 전국 시도회장 회의에 참석하여 보니 제가 우물안 개구리였다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리업계 탑 순위 업체의 매출이 충북도회 회원사 전체 수주액보다도 훨씬 많은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 충북도회가 처한 현실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 후 어떻게 하면 충북도회 회원사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도회 회원사의 경영환경이 좋아질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배움의 자세로 그 부족함을 채워가며 우리도회 및 회원사의 피부에 와 닿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으로 협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임 회장님과 임원님들께서 이루어 놓은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전임 회장님들과 원로 선배님들, 존경하는 회원사 사장님들의 고견에 귀기울여 회원사간 화합과 단결은

물론 우리업계 최대 목표인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 및 정착 등 우리업계의 권익과 위상제고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첫째, 분리발주 확대 및 정착 등 충북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

충북지역은 공사물량 및 도세를 비교해 볼 때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역대 회장님들과 운영위원님들께서 발주관서와의 간담회 등 충북도내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를 적극 추진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우리도회 회원사 공사실적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충북지역 공사물량 감소로 우리도회 회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아닌 소폭 상승세를 보인 것은 공공공사 분리발주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도회는 공공공사 분리발주가 더욱 확대되어 정착단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전 회원사가 전력을 다하여 매진하겠습니다.

충북지역에서는 큰 규모의 공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으로 충북지역에도 10여개 기관이 이전되어 파급효과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대형사 위주로 발주되는 바람에 충북지역 업체 참여는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도회는 외지 업체들이 충북지역 내에서 시공하는 국가 공공기관 및 오송 의료사업지구 민간아파트 단지 등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현장소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북지역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 향상을 위한 관련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7월 1일부로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송 의료사업지구 지정 등 여러가지 복잡한 행정절차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통합 청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스사업법령 규제 개선 추진

충북지역에는 청주, 음성, 진천, 보은, 옥천, 영동 지역에 LNG(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충청에너지서비스(주)와 충주지역에 공급하는 참빛충북도시기가스가 있습니다. 또 우리 충북도회에는 약 40여개의 가스시설시공업(1종) 회원사가 전체 회원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충북도회 회원사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업자는 자체적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도내 가스관로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충북지역 회원사가 배제되고 타 지역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도회 회원사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업체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도내 회원사 일거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실에 위배되는 가스법령 및 검사기준과 불공정한 검사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공품질점검활동 활성화 추진

충북지역에서 분리발주가 빠르게 확대 및 정착된 이유는 관계부처에 공문발송 및 방문을 통해 분리발주를 적극 건의하는 한편 지역 언론을 통한 활발한 홍보입니다.

그러나 시공품질점검활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분리발주를 수주한 회원사들의 시공품질 및 기술개발과 성숙된 시공능력 관리에도 불구하고 일

부 발주기관에서는 시공관리상의 문제점 및 시공 품질 저하, 사후관리 등을 우려하여 발주처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회는 서울특별시회에 이어 지방 시도회 처음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공품질점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공품질 점검은 일반사항,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등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하여 평가 결과를 회원사 및 발주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 및 시공품질 향상 유도과 함께 발주기관의 부정적인 시각 해소, 기계설비건설업계의 업역 확대, 권익보호에 적극 앞장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사에게는 책임시공 의무감을, 발주기관에는 협회 차원의 분리발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인지시킴으로써 분리발주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회는 앞으로 새로 구성된 시공품질점검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분리발주 공사 및 공공 공사 수주 회원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성실시공을 유도하여 분리발주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회원사 지원사업 추진

열악한 경영환경에서 회원사 임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은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회는 회원사의 업무효율 증진을 위해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설계약, 건설관계법령,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노무강습회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관계법령 해설, 입찰·계약제도 실무 및 적격심사 등의 자료를 수시로 회원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정확한 회원정보 관리와 기계설비 관련 업무에 대한 상세하고 성실한 상담, 친절과 봉사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회원사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하반기에 걸쳐 △북부지역(충주, 제천, 단양) △남부지역(보은, 옥천, 영동) △통합 청주시의 상당구·흥덕구·청원구 및 서원구의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여기서 토출되는 건의사항을 협회 운영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회원사들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회 활동상황을 홍보하고 협회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춘계 체력단련대회 및 추계 산행대회를 통해 전 회원사가 동참하고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적극 활용하여 회원사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더욱 단결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회원사의 경조사에는 가능한 회장단과 임원진, 운영위원들이 참석함으로써 회원사와 정감을 나누고 더불어 상생, 발전하는 협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산학협력 및 기계설비인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우리도회는 충북지역 내 설비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공업계 고등학교와 산학연계 교육 협약을 통해 현장실습과 졸업생 취업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관련학과에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기계설비 기술인력 육성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비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공업계 고등학교에도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약 1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회가 이처럼 공업계 고등학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공업계 고등학교부터 기술인력 양성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업계로 진입인력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충청대학교 건축환경설비과 제1회를 졸업할 때만 해도 지원자가 많았습니다만 갈수록 지원자가 줄어들어 학과가 통폐합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은 3D업종으로 치부되고,

적은 급여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업계의 일감과 직결되는 문제로 우리 업계가 더욱 성장하고 일감이 많아진다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창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며 우리업계의 경영환경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도회는 회원사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사회는 어느덧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회는 지난 2012년부터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위한 기숙형기술고등학교인 제천 소재의 한국폴리텍다솜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매년 장학금 지급 및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산학협력 사업 및 미래 기계설비인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은 향후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자산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나눔 성금 및 발전기금 등 사회환원 사업 활발

우리도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타 시도회와 달리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환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협회 임원들이 회의 참석 거마비를 적립하거나 협회 예산을 절약해 모은 성금, 또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 환원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은 성금을 우리도회는 지난 2006년부터 충북교육청과 청주교육지원청에 희망나눔 성금과 교육기부 성금,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충북도와 청주시로부터 추천받은 재활원 및 보호시설, 회원사로부터 추천받은 불우이웃들에게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원생명축제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의 입장권을 구매,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함으로써 불우이웃들의 문화생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는 통합 청주시가 개최하는 201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입장권 구입과 실내외 현수막 또는 광고탑을 설치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불우이웃들의 문화활동 증진은 물론 협회 홍보, 기계설비건설 업계 위상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충북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등 3개 국립대학에도 대학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책임과 의무, 그리고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도회 회원사들의 뜻입니다. 저는 회원사들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 매년 협회 예산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책정하고 성심성의껏 지원할 계획입니다.

회원사에 당부말씀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도발 위협과 풍전등화같은 안보상황, 아시아 각 국가들의 영토확장과 전투력 증강에 따른 정세 불안 및 세계적인 경제 불황 등으로 여러가지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건설경기 침체 및 시공물량 부족으로 지역의 많은 회원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최저가 하도급 종용, 일부 업체들의 덤핑수주 등 수주질서의 난무로 회원사의 공사수익은 공사원가 보전도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최근들어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종합건설사의 부도여파로 우리 기계설비건설업계는 더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저가수주 방지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절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저가수주 근절을 통한 수주환경 개선에 회원사 여러

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과 사업은 결국 회원사의 수익과 경영개선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곧 협회 발전이며 회원사의 발전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어려울수록 경쟁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상생정신

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기 바랍니다.

회원사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업체와 협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격의 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원사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그동안의 성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김동오 회장은

- 1967년생
- 청주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청대학교 건축환경설비과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株)태창공영 대표이사(現)
- 청주 운동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現)
- 국제로타리클럽3740지구 청주중앙로타리클럽 회원(現)
-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검수위원(現)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 운영위원(7대)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 부회장(9대)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장(現)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現)
- 청주시장 감사패(성실시공)
- 충청북도 도지사 표창(가스사고 예방)



충북지역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업무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충북도회 사무처 직원들 (왼쪽부터 양충석 사무처장, 김동숙 대리, 임민영 직원)